

### 관람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동절기: 오전 9시 ~ 오후 5시 20분까지)

### 휴관일

1월 1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및 추석,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 삼해유배문학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745 남해유배문학관  
대표전화 : 055)860-8888 팩스 : 055)860-8889



### 독도침탈의 허구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불법편입하였다. 이는 일본의 한 지방정부가 임의리에 진행된 일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타 정부 기관들은 독도의 편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일본의 중앙정부, 육·해군,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독도를 조선의 영토 혹은 침탈한 영토로 표기하였다. 이처럼 독도에 대한 일본 부처의 상반된 행위는 역설적으로 그들 스스로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독일독립부일방지도구역일본도 기법』, 일본 1905년

### 해방 이후의 독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일본이 불법적으로 침탈한 독도를 남한의 영토로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되찾았지만, 독도에 대한 주권이 완벽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독도를 미군관할 구역으로 사용,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수많은 일본도 주민들이 배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이익을 버리지 못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누락시켜버렸다. 이에 1952년 한국 초대 정부는 해양주권보호와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해 명확성을 설정하는 등 독도수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군정청할말도(SCAPIN-477), 미국 1946년』 『내무성지리지조사발행지도일련도, 일본 1945년』

### 독도의 실효적 지배

과거부터 독도는 울릉도 주민의 삶의 터전이었다. 1940년 후반부터 독도에 제주 해녀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며 생활 여건이 마련되기 시작했으며, 1965년 최중덕씨가 독도 공공어장채취권을 획득하며 독도는 사람이 사는 땅이 되었다. 1987년 최중덕 씨가 사망한 이후 그의 동료였던 김승도씨가 1991년 주민등록을 출기 공식적으로 독도주인이 되었으며, 2007년에는 독도리 이상으로 위임했다. 그는 지금도 독도에서 삶의 터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독도수호를 위하여 김형은 1954년 7월 독도의용수비대의 임무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독도수호 임무를 위한 독도경비대를 창설하여 독도에 상주하여 본격적인 독도 경비임무에 착수했다. 그들은 척박한 자연환경에 맞서 독도를 개발해 갔으며 항정력을 보강하고 레이다 기지를 창설하는 등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과 실효적 지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독도의 최초 주민 故최중덕, 1983년 3월』 『독도리 이장 김형은』

### 잃어버린 바다 조선헌

한때 한반도의 동쪽 바다에 대해 한국은 동해, 일본은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동해의 고유 명칭은 조선헌(朝鮮海)이다. 조선헌은 우리의 주권이 상실될 때까지 불린 명칭이며, 일본 또한 이 바다를 조선의 바다로 인정해 조선헌로 지도에 표기하였다. 영미문화관에서 발행한 지도에서도 'Sea of Korea', 불어문화권의 'Mer De Coree', 러시아문화권의 'Korea Gulf' 등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조선의 바다로 표기하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일본해라고 부르던 바다가 세계사회에서 태평양으로 통용되는 것을 알게 되자 조선헌을 일본해로 인식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그래서 일본은 세계지도 및 동북아시아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조선헌을 일본해로 바꿔 표기하여 배호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서구인의 인식 속에 조선헌은 일본해로 등단되고 있었다. 일본은 바다의 이름을 빼앗는 것들 시작으로 독도를 가릴 만저 탐탈하였고, 한반도를 식민지화 시켰다.



『Carte des Indes de la Chine et des Iles de Sumatra, Java & C., 프랑스 1732년』

# 남해에서 만나는 독도



남해유배문학관 · 독도박물관 공동기획전  
2018. 4. 17(화) ~ 7. 31(화) / 남해유배문학관